

남양주 출발... ‘27분’ 만에 잠실 도착

8호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 일환
8월 10일 오전 5시 30분 ‘첫차’ 개통
출퇴근 시 ‘4분 30초’ 빠른 배차간격

구리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이 다음 달 8월 10일 구리역 기준 오전 5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개통된다고 밝혔다.

8호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2016년 착공해 총사업비 1조 3916억 원이 투입됐다. 서울시와 구리시, 남양주시에 총 6개 정거장을 신설해 기존 8호선 암사역에서 별내역까지 총 12.9km 구간이 연장되는 노선이다.

8호선 연장 구간 운행 차량은 6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배차간격은 기존 8호선과 같이 출근 시간(7시~9시)과 퇴근 시간(18시~20시)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 시운전 차량 시승을 하며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대는 4분 30초 간격으로 운행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8분대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6개 역 중 ‘구리역’은 환승 통로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국내 최장 길이인 65m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다. 이에 구리시는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동선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최대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줄 서기 및 추월 뛰기 금지 등 안내문을 충분히 설치해 대대적인 안전 수칙 홍보를 통해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수년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통행 불편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리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8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서 구리시가 지하철 시대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역사 운영을 철저히 해 시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8호선 연장 구간 개통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오는 8월 9일 오후 5시에 구리 환승역에서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소형 기자

몰랐던 문화유산... “광명 보물을 지켜라”

市, 비지정유산 보존 착수보고회 개최
관리 법적 근거 없는 ‘사각지대’ 존재
가치에도 국가·도지정유산 지정 못해
선제적인 종합관리계획 필요성 강조

광명시는 가치는 있지만 국가·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에서 소외된 관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유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부서 등이 참석해 ‘광명시 비지정유산 보존 및 종합관리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국가·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유산은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명시는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비지정유산에 대한 보호·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광명시에는 ▲철산동 지석묘 ▲하안동 이효성 묘표 ▲일직동 무의공 이순신 묘 ▲가학동 경모재 ▲노은사동 강석기 신도비 ▲옥

길동 고분군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유산이 다수 존재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광명시 비지정유산의 문헌자료 수집 및 정리 ▲현지조사를 통한 광명시 비지정유산 현황 파악 및 목록화 ▲비지정유산 중 광명시 향토유산 지정 가치 검토 및 향후 보존·활용 방안 등을 수립한다.

오는 8월까지 지역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10월까지 지역별 비지정유산을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가치 검토 및 등급 분류를 거쳐, 2025년 1월에 보존·활용 계획을 최종 수립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문화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재력을 갖춘 유산을 보존·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비지정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기반을 구축해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의 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토유산을 포함해 국가·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5월 17일 시행됐다. 김원규 기자



이천시 관계자가 폭염경보에 따라 그늘막을 설치하고 얼음생수를 보급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폭폭 찌는 폭염 “이천시가 더 신경쓸게요”

市, 분야별 대책 강화 안전관리 추진
얼음생수 보급과 선풍기 413대 지원

이천시는 지난 24일 폭염특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되자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폭염 T/F 부서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일일 감시 ▲농축산분야 피해 예방 집중홍보 ▲취약계층 방문 및 안부전화 추진 ▲옥외건설현장 작업자재 권고(오후 2시~오후 5시) ▲폭염 저감시설 작동상태 점검 ▲그늘막 얼음생수 보급 등 시민들의 불

편이 없도록 폭염 분야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폭염특보 시 그늘막 32개소에 얼음생수를 보급하고 있으며 무더위 쉼터에 선풍기 413대를 추가 지원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마 직후 높은 습도에 폭염까지 더해져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주변 이웃의 안부를 확인 등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석균 기자

“지방세 미환급금 잊지말고 꼭 챙겨가세요”

군포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6600만 원을 돌려준다.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1600건으로 금액은 6600만 원에 달한다. 대부분이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등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위해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시, 환급통지서 우편발송 실시
총 6600만 원, 5만원 미만 소액 건

찾아가지 않은 세금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입 ARS,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위택스,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지방세 환급제와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환급제와를 미리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길우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제와 사전등록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분실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철 기자

성남시 ‘찾지단’ 위기이웃 복지안전망 강화 맞손

지역 내 만나교회와 업무협약식 진행
사회복지·의료·법률 등 보호지원 연계
맞춤형 복지 서비스·통합사례 관리도

성남시가 위기 가구를 찾아 발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지단’(2709명)이 지역 교회와 맞손, 복지안전망과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병삼 만나교회 담임목사(분당구 야탑동)가 참석한 가운데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측은 ▲위기 이웃 발굴 및 제보 ▲‘우리 동네 찾지단’ 활동 참여 ▲상호협력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공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등 내용에 동의했다.

이후 만나교회는 사회복지,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인들로 구성된 ‘만나복지교대’(32명)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 복지 정



성남시는 24일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병삼 만나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 제공

보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찾아내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도록 연계한다. 시는 접수된 위기 가구와 상담을 진행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사례 관리를 진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권 밖 위기가구를 포괄하는 촘촘한 지역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찾지단은 성남지역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단체로, 50개 동의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생활업종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년간 이들은 위기가구 4055가구를 찾아내어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 737건, 이웃돕기 후원성품 4397건을 연계했으며, 고독사 고위험군 1821가구를 모니터링했다. 김경기 기자

안성시 ‘전화 한 통이면 끝’... 민원상담콜센터 시스템 구축

기존 전화돌림담당자 부재 불편 해소
지능형 챗봇 도입, 편리한 비대면 응대

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안성시 민원상담콜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민원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 질의응답, 부서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민원상담콜센터는 행정민원, 생활민원, 세무, 복지, 교통 등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문상담원이 전화 한 통으로 한 번에 처리(One-Call, One-Stop)함으로써 기존의 전화돌림, 담당자 부재, 상담 불친절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콜센터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 이외에 지능형 챗봇을 도입해 자연어 형식의 질문

과 답변을 통해 비대면이 편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으로 한층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2024년 7월 ‘민원상담 콜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상담원 채용 및 업무교육, 콜센터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4년 12월 정식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우 기자

실내 환가마스크 착용 예방수칙 준수
12세까지 병원 무료 백신접종 시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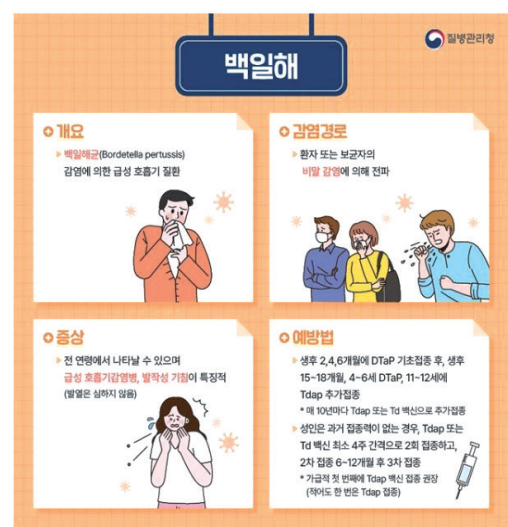
양평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군민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백일해는 제2급 감염병으로 기온과 습도 변화에 민감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며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7월6일 기준 전국 환자수가 6986명으로, 지난 10년 대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행하며 전염력이 높아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학교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원·등교를 자제하고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백일해 백신 예방접종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백일해 백신 예방접종은 생후 2.4개월 기 초접종 후 생후 15개월부터 18개월, 4세부터 6



양평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군민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양평군 제공

세, 11세부터 12세에 추가접종이 필요하며 군은 국가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12세까지는 소아과, 내과 등 병원에서 무료로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최근 백일해가 유행함에 따라 기침 예절준수, 손 씻기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학교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